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제5강
10월 18일(화)
오후 7시-9시

사산조 페르시아와 쿠쉬나메



강사: **이희수** 교수

터키 이스탄불대학교에서 튀르크 이슬람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 마르마라대학교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등지에서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 『이슬람과 한국문화』, 『세상을 바꾼 이슬람』, 『중동의 역사』, 『쿠쉬나메』 등이 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문명 1200년 역사를 마감하는 최후의 제국이었다. 로마와 뒤이은 동로마 제국과 쟁패하면서 세계적 패권을 다투었고, 동서로 찬란한 문명을 전했다. 페르시아인들의 신앙이었던 조로아스터교 전통은 후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립과 교리 발전에 기여하였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지방분권제도, 다문화융합, 정교일치적 국가운영, 군대조직과 조세제도 등 거브넨스는 뒤이어 흥기한 이슬람 제국의 형성과 성장에 굳건한 토대를 제공했다. 이 제국이 아랍에 멸망하면서 마지막 왕자가 당나라에 망명해 있다가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여 삼국통일 전후시기에 활약상을 담은 <쿠쉬나메>란 페르시아 서사시가 발견되어 신라와 페르시아간 문화교류와 인적 접촉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미국 UC Press에서 영문으로 발간되었고,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에서 우리말 번역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교류정황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